

Beta Gamma Sigma

[Global Leadership Summit Report]

참가보고서 1

20100842 경영학부 김영호

전 세계 AACSB 인증을 받은 경영대학의 Honors Group인 Beta Gamma Sigma 회원만 참여할 수 있는 Global Leadership Summit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포럼은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 웨라톤 호텔에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영학과의 상위학생만 가입할 수 있는 Beta Gamma Sigma의 일원이 된 것으로도 기뻐는데, 학교를 대표해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Global Leadership Summit의 주제는 전 세계 Best of Best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영대학의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비즈니스 리더가 되기 위한 리더십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Day1] 2016.11.3.

첫 날 본격적인 행사는 오후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Grand Hall에서 1시간 정도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저녁 식사 중에도 미국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어느 분야에서 일할 것인지 물어 보는 모습에 우리의 대학생들보다 성숙했다고 느꼈습니다.

6시에는 ABC홀이라는 곳으로 이동해 BGS CEO인 Chris Carosella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이후 6시 20분부터는 1시간동안의 Justin Nygren의 강의를 바로 시작 되었는데, 주제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도 관련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 접해본 적은 있었지만, 한국과 달리 강의 내용과 질문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목표라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창업을 하더라도 non-profit한 이유는 크게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Justin Nygren의 강의 이후에는 Dr.Tim Clipson의 강제가 있었습니다. 동기부여와 관련된 강의였는데, 과거에 우리가 받을 담고 있지만 미래를 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연사분과는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 개인적인 대화도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고 실제로 항상 주위에 있는 학생들을 재밌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AACSB협회의 CEO분께서 격려의 말을 해주시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DAY2] 2016.11.4.

두 번째 날의 일정은 오전 7시 15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아침을 먹으며 교류하는 행사가 있었고, 8시 15분부터는 Doug wilks의 강의가 시작되었는데 제목은 Discovering, Developing and Focusing Your Strengths 이었는데, 우리 안에 숨어 있는 힘을 찾아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강의를 위해서 Leadership Summit에 참석하기 전에 Gallup에서 개발한 Clifton Strengths Finder Test를 해오라는 준비사항이 있었는데, 각 사람의 성향에 따라 성공하는 장점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피동적인 앉아서 하는 강의가 아니라,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과 결과물을 교류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2시간 30분의 Doug wilks의 강의 이후에는 다시 Tim Clipson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Building Bonds, Breaking Barriers였는데,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 쉽게 유대감을 형성하고, 처음 볼 때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유머 감각이었습니다. 자신을 유쾌하게 해주는 사람에게는 쉽게 사람들이 마음을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1시 30분부터는 Alyssa Preston의 From Here to There강의가 있었습니다. 문제해결의 프로세스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쉽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Begin - Explore - Interpret - Decide - Act로 나누고, 각 과정에서 중요한 Key Factor들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강조한 내용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할 때에 자신만의 분명한 Value, Vision이 있어야 후회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자신의 Value를 알 수 있게 주위 사람들과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점에 대한 의사소통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4시 30분부터는 Influence and Impact라는 주제로 alex Sevilla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다음날부터 진행될 조별 Case Competition을 위한 강의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영향력 있게 표현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Clear하고, Clean 하게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Energetic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Brain Storming을 할 때 상대방들이 가진 Strengths를 파악해서 역할을 잘 이행할 수 있게 과제를 분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후 저녁 식사 이전에 5시 30분에는 Talent Recruiter Panel들이 나와서 구직활동을 할 때의 중요한 점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3M, GEICO, KPMG, NESTLE 등의 글로벌 기업의 리쿠르팅이 있었는데 한국 대학에 재학중인 저희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차후 미국에서 구직을 하게 된다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DAY3] 2016.11.5.

이 날 역시 일정은 오전 7시 15분에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 동안의 아침식사와 교류 시간 이후에 8시 15분부터는 Amy Hall의 Profit&purpose 강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Profit도 중요하지만 기업에 있어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리더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히 기업의 목표가 매해 더 많은 이익 창출인 기업은 구성원들이 동기부여 되지 않고 발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후에는 The core of Business Strategy와 Job Search Success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Job Search Success를 선택해 참석하였습니다. 강사는 Darren Nelson이었는데 구직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0시 45분 부터는 Ethical Leadership에 대해서 Alfonzo Alexander의 강의를 있었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윤리적 경영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윤리적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결국 비즈니스 리더가 되기 어렵다고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전 마지막 내용은 Dmitri Stockton GE Senior Vice President의 강의였습니다. 이번 Global Leadership Summit의 Key note Speaker였는데, 저 역시 많은 기대를 가지고 들었습니다. 강의 제목은 Transforming Global Business였는데, 연사분의 다양한 지역에서의 근무 경험, 성공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해나갈지 얘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취직하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미리 선정된 조별로 Case Competition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Ethical case이었는데 내용은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하는 주인공이 자신의 직속 상사가 공개된 장소인 카페에서 다른 지인과 클라이언트 회사의 영업 비밀, 현황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였습니다. 이 주제로 PPT를 준비해 다음 날 발표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DAY4 그리고 느낀 점]

마지막 날 일정 역시 오전 7시 15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8시30분부터는 각 조의 발표가 있었는데, 저희 조는 8시 45분에 배정받았습니다. 다양한 주제가 있었고, 같은 주제인 팀이 4개가 있었는데 , 이 4팀 간의 경쟁을 통해 최종 수상 팀을 선정했습니다. 저희 팀은 아쉽게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상식 이후에 행사는 종료되었습니다. 발표에 있어서 미국 학생들은 한국보다 덜 부끄러워하고, 당당한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준비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학생들은 잘하고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 학생들은 조금 만 잘해도, 자신이 있어

도 바로 표현하고 자신이 책임을 맡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저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당당하게 자신의 장점을 얘기하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열렬한 토론을 할 때에는 날카롭게 서로를 비판하지만 주제가 종료 되고 나면 서로 웃으며 얘기하는 것을 보고, 공적인 토론 자리에서의 비판이 사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를 가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자신의 분명한 진로를 가지고 인턴쉽을 하는 등 진로를 설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러한 모습 역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대학 졸업반이 되어서도 자신의 분명한 적성을 알지 못하고 가능한 많은 기업에 지원하는 학생이 많은데, 물론 스스로 해야 하는 연습이겠지만, 이러한 연습을 할 수 있는 강의가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에도 더 많이 개설된다면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진행된 델러스를 둘러볼 시간이 있었는데, 이 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장소를 박물관으로 만든 Sixth Floor Museum을 방문하였습니다. 흑인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는 케네디 대통령을 기념하는 박물관 바로 옆에서 최근에 백인 경찰에 대한 총격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미국 사회는 아직도 인종 차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진]







참가보고서 2

20101002 경영학부 이재철

1. 들어가며

경영학부 Honor Group인 Beta Gamma Sigma(이하 BGS)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우수한 서강 경영인들과 교류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하지만 BGS는 본래 세계적인 경영대 커뮤니티로서 서강 뿐만 아니라 각국의 여러 대학들이 연결된 조직이기에, 다른 나라의 BGS 회원들과도 꼭 교류해보고 싶었다. 2016 BGS Global Leadership Summit은 이런 바람을 이뤄준 소중한 기회였다. 설레는 마음으로 회의가 개최되는 남부 상업도시 Dallas에 입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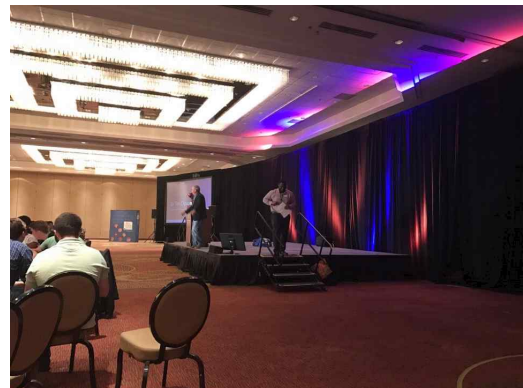


[사진1] 4일간의 회의가 개최되었던 Dallas Sheraton Hotel

2. Day 1(11/3)

첫째 날은 비교적 간단한 일정이 마련되어 있었다. 장시간의 비행으로 많은 학생들은 지쳐보였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며 '경영학'을 나눌 생각에 다들 들떠 보이기도 했다. 오후 5시에 이른 저녁을 함께 하고, 6시부터 공식적으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이날 저녁 가장 인상적인 강연은 Tim Clipson 교수의 "Cracker Jacks, Kangaroos, and Snipe hunting : Life Lessons for Today's Leaders"였다. 재치와 유머를 겸비한 그의 리더십 강연은 서로 처음 마주하는 각국의 학생들의 어색한 분위기를 녹여주었다.

사실 GLS에 참가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점은 다소 부족한 회화실력에도 학생 및 강연자와 잘 소통할 수 있을지 여부였다. 하지만 일상적인 회화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 강연도 수월하게 들을 수 있었다. 앞으로의 회의일정이 점점 기대되었다.



[사진2] 회의장 모습 및 Dr. Tim Clipson 강연

3. Day2(11/4)

이른 아침부터 강행군이 시작되었다. 아침 8시까지 식사를 마무리하고 바로 강연들이 이어졌다. Strengths Launcher의 Director인 Doug Wilks의 강연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지닌 ‘강점’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국 전에 BGS 측에서는 Gallup Strengths Center를 통해 나의 강점을 파악하는 온라인 설문을 행하도록 하였는데,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왔다.

GALLUP Strengths Center

CONGRATULATIONS, Lee!
 You've joined over 10 million other people in discovering your top five strengths:

1. Individualization
2. Restorative
3. Achiever
4. Communication
5. Ideation

[사진3] 나의 5가지 강점

또한 매우 인상적인 강연은 Alyssa Preston의 "From Here to There"였다. 그녀는 무대에서 머물지 않고 회의장을 쉼 없이 돌아다니며 학생들과 소통하였고, '여기'에서 '저기'로 넘어가는 단계마다 필요한 계획과 실행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4. Day3(11/5)

셋째 날도 이른 아침부터 일정이 시작되었다. 오전 내 여러 강연들이 이어졌지만, 이날의 백미는 Team Competition 준비였다. 훌륭한 연사들의 강연도 좋지만, 여러 나라의 경영대 학생들이 하나의 주제를 갖고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여 경쟁하는 Team Competition이 가장 내가 기대했던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Yellow Horse 팀에 배정되었고 '전기공급시장 및 정액제와 관련된 기업의 딜레마'에 대해 다루게 되었다.



[사진4] Team Competition & Case Study

스터디를 하면서 나는 일상 대화와 달리 전문적인 내용을 다룰 때 점차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깨달았다. 학문적이고 비즈니스적인 회화는 다른 차원임을 알게 되었고, 내가 바라는 진로에서는 그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기에 앞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5. Day4(11/6)

마지막 날은 Team Competition 발표 및 수상이 진행되었다. 한국어로 하는 presentation은 나름 능숙하고 자신있어하는 나였다. 하지만 비즈니스 회화에도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영어PT는 더욱 멀고 먼 차원이었다. 결국 영어발표에 능한 미국 친구들 몇몇이 발표에 참여했고, 부족한 실력으로 인해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 매우 아쉬웠다. 우리 팀은 Yellow Sector에서 우승하지 못하여 최종 PT에 오르지 못했다. 4개의 Sector 우승팀이 무대 앞에서 최종 PT를 행했고 가장 우수한 팀이 선정되었다.



[사진5] 개인 및 Yellow Horse 팀 기념촬영

6. 나가며

2016 BGS GLS는 여느 다른 해외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경험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해외를 방문하고 문화를 체험하는 식이 아니라, 학술적인 차원에서 좋은 강연들을 접하고 더욱이 훌륭한 외국 경영대 학생들과 교류하며 Team Study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일정의 막바지는 16년도 미 대선이 가까워오는 시기였습니다. 역사적인 시기에 미 대학생들의 견해까지 알아볼 수 있었던 이번 프로그램은 저에게 행운과도 같았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을 더욱 갈고닦아서 진정한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려 합니다.